

# 장백산천지

제 208 호

2012년 4월 6일

금요일

## 오늘날 중국의 가장 온정과 가장 불온정한 요소

최근 몇년동안 중공이 사회온정을 수호하는데 투입된 경비는 점차 증가되어 연속 3년간 투입된 군비를 초과했다. 그러나 사실상 온정을 수호하는데 투입된 경비가 많을수록 불온정한 요소는 더 많아졌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중국의 온정과 불온정의 요소는 도대체 무엇인가?

### 파룬궁수련자와 수많은 선량한 민중은 사회온정의 주추돌이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전에 파룬궁수련자가 대략 1억이었다. 그들은 파룬궁을 수련하여 신체상황을 크게 개선했을뿐만아니라 나라에 대량의 의료비용을 절약했다. 또한 파룬궁수련자는 일상생활에서 “쩐싼런”의 법리에 따라 엄격히 마음을 닦아 개인득실을 따지지 않고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착하게 대했고 모순에 부딪치면 안에서 찾아 자신을 제고했다. 이렇게 거대한 신앙단체는 중국사회를 온정시키는 강대한 힘이며 튼튼한 온정의 주추돌이다.

1992년 5월부터 파룬따파는 중국대지에서 신속히 전파되면서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재빨리 퍼졌고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은 병마에서 해탈되었고 화목하지 못했던 부부들은 가정의 화목을 회복하였다. “쩐싼런”은 사람들 마음속의 불성을 깨우쳤었고 짧은 7년동안에 수련자가 1억이 되었는데 중공 장저민집단의 탄압이 없었다면 지난 10년동안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파룬따파수련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파룬궁학원들은 10년동안 잔인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평화적인 반박해를 시종 견지하면서 민중들에게 진상을 이야기했고 “쩐싼런”을 행동에 옮겼다.

### 파룬궁을 탄압하는 정법위원회는 중국의 가장 큰 불온정한 요소로 되었다.

1999년 7월 장저민은 개인의 질투로 인해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대가를 아끼지 않고 후과를 고려하지 않고 “명예상에서 더럽히고 경제상에서 단절하며 육체상에서 소멸한다.”, “때려죽이면 자살로 친다.”, “3달내에 소멸한다.”, “파룬궁에 대해서는 법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탄압정책을 하달했다.

장저민은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해 각급 정법위원회 (및 그 산하의 파룬궁을 전문 박해한 “610”)에 헌법과 법률을 초과하는 권력을 주었다. 공안, 국가안전, 무장경찰, 로동교양, 사법, 검사, 선전, 외교, 교육, 문화 등 전국국가기구를 총동원하여 파룬궁을 박해했다.

거짓말선전으로 민중들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랍치, 감옥살이, 혹형, 학살 심지어 파룬궁학원의 생체에서 기관을 적출하여 판매했다. 전정법위원회 서기 뤼간이 친히 획책한 “천안문분신자살안건” 등은 거짓말로 수억의 진상을 모르는 백성들을 기편하여 파룬궁과 “쩐싼런” 수련자를 증오하게 했다.

장저민에서 뤼간에 이르기까지 또 쥐융강에서 버시라이, 왕리쥘에 이르기까지 중공정법위원회와 “610”은 파룬궁을 탄압한 10여년동안 점차적으로 중국의 “제 2 권력중심”으로 되었고 전국각지방에 성, 시, 현 3급 당위정법위원회서기는 3,300여명이 된다. 이렇게 전국에 펼쳐놓은 죄악의 그물은 생사박탈의 대권을 틀어쥐고 중국을 “국가흑색사회주의”로 전락시켰다.

장저민집단은 박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4분의 1의 재력을 투입했다. 이렇게 온정을 수호하는데 재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새로운 불온정한 요소는 더욱 많아졌고 중국사회는 더 불온정해졌다. 집단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사회모순은 일촉즉발되어 중공은 분화구에 앉게 되었다...

### 정법위원회와 중공을 포기하는것은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출로이다.

장저민, 뤼간, 류치, 쥐융강을 위수로 하는 전형대표인 중공정법위원회는 중국을 동란상태에 처하게 하고 백성을 도탄속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불온정한 요소이다. 누구든지 중공해체의 운명을 만구할수 없지만 각급 관원들을 놓고 말하면 그들이 박해에 대한 태도와 박해원흉에 대한 처리는 당신들로 하여금 악운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다. 정법위원회와 중공을 포기하고 파룬궁을 탄압한 원흉을 징벌해야만 중국각급 관원들은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출로이며 또한 중국사회가 온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도경이다.



# 도 편 뉴스



이미 200 여개 성사에서 전시된 “전산런국 제미술전람”은 지난 3 월 15 일부터 26 일까지 프랑스의 보르도시의 샤허통전람관에서 전시되었다. 프랑스국회의원 부하러는 미술전람을 위해 막을 열었다.



지난 3 월 21 일, 아일랜드파룬따파학회는 아일랜드의회대청박에서 뉴스발표회를 소집하고 파룬궁학원 대표들의 2 만여명 서명신을 케니 총리에게 드리고 총리가 중국방문기간에 파룬궁 박해문제를 제기해줄 것을 바랐다.



지난 3 월 17 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제 161 기 세인트 패트릭의 날 시위행진에서 파룬궁미국서부 천국악단, 련공대오와 꽃차로 구성된 파룬궁학원대오는 관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 쥐용강을 처단하자

중공중앙정법위원회서기 쥐용강은 강택민의 파룬궁박해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두목이며 원흉이다. 장저민이 떨어진후 쥐용강은 정법위원회의 권력을 리용하여 파룬궁학원에 대해 집단학살을 집행했다.

쥐용강의 지시하에 중공특무들은 해외파룬궁학원들을 공격하고 옥하고 위협하고 구타했다. 쥐용



강은 “화교보”를 통해 파룬궁학원들이 쓴 “천멸중공”란 프랑카드를 “천멸중공”이라고 고쳐놓아 중국사람들이 파룬궁에 대한 증오을 선동했다.

쥐용강은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610”、국가안전、공안、사회구역의 특무들을 직접 지휘하여 파룬궁학원들을 박해했다. 그가 어디에 가면 그곳 파룬궁학원들이 랍치되고 박해가 심해지며 세뇌반을 꾸려 정신을 파괴했다.

쥐용강은 2009 년말부터 2011 년초까지 파룬궁학원에 대한 모해안건에 대해 중하게 처리하라고 법원 등 부문에 지시했다.

2010 년 11 월, 쥐용강이 중경에 갔을때 버시라이와 왕리전은 쥐용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음모를 꾸며 몇십명의 파룬궁학원들을 랍치했다.

2010 년 11 월, 파룬궁학원이 료녕성대련교통방송에 진상삼입하는데 성공했을 때 쥐용강은 대련에 주둔하고 많은 경찰과 부대까지 동원하여 파룬궁학원을 랍치했다.

2012 년, 심양륙군총병원에서 파룬궁학원생 체장기적출을 폭로한후 쥐용강은 무한에 가서 친히 파룬궁 박해를 지휘했다.

장저민, 뤼간, 쥐용강집단은 국민생산총액의 4 분의 1 에 해당되는 거액의 자금을 소모하여 파룬궁을 박해했다.

쥐용강은 파룬궁을 박해한 반인류, 흑형, 그리고 집단학살죄악은 중공의 해체와 함께 청산되고 말 것이다.

